

한국 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의 연혁과 미래비전



박 예 수
재단 사무총장 한양의대

서론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은 2008년 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보건의료인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국제교류 사업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2008년 초대 이사장으로 서울의대 김정구 교수님께서 취임하셨고 이후 2대 임승길 교수님, 3대 최용환 교수님, 4대 최훈 교수님이 재단을 이끌어 주셨으며 2020년 현재는 초대 이사장이셨던 김정구 명예교수께서 감염병 확산에 의한 국내, 전 세계 국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재단 극복을 위한 비상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결과 변화가 필요하여 다시 이사장에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본론

본 재단은 2008년 이래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치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2012년 부산지회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2014년 경인지회, 2016년 강원지회를 창립하였고 2019년 호남제주지회의 창립 후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지회를 대한골다공증학회로 귀속시키고 재단은 본연의 설립목적인 새터민 지원 사업, 여성 및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사업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대국민 홍보 및 봉사 활동 등 국민 건강과 복리 증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재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기로 방향을 잡아 활동 중입니다.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은 오랜 기간 이 분야에 종사하셨던 전문가 분들로서 다양한 학계에서 골다공증 분야의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로 내분비 대사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분야와 골다공증의 학문적 접목과

대국민 홍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대한골다공증 학회와 함께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지침, 2회에 걸친 골밀도 측정 가이드의 발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교육적으로도 골다공증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고령 노인들을 위한 봉사와 교육, 취약 여성들의 무료 진료와 교육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골다공증 재단과의 교류 등 해외 골다공증 재단들과의 교류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코로나 진료 상황하에서의 원격 진료와 골다공증, 폐경 연상 관리에 대한 Web symposium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결론

앞으로도 골다공증에 대한 교수 자문단의 양성을 위해 전문가들의 교육에 보다 매진할 예정이며, 학회 지회 행사 시에 대국민 강좌와 취약 계층 여성들의 검진과 교육에도 힘을 보태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국민 건강 걷기대회 등 공익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더불어 보다 큰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의 심포지움이나 보건 활동에 보조를 같이하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초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근골격계 질환들의 예방과 치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화두에 매진할 예정이며, 특히 고령 노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강 체조를 소수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만들어 보급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Bonejour](#)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창립 기념식
일시: 2008년 4월 2일(수) 오후 6:30 장소: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 룸



그림 1. 2008년 재단 창립 기념 학술대회 기념 사진



그림 2. 2018년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념 사진